

역사 데이터는 서사를 바꿀 수 있을까?

중국해관 통계와 나의 경제사 연구

숫자가 역사를 말하게 할 수 있을까?

Chinese Maritime Customs Statistics and My Research in Economic History

How do historians make Customs data speak?

숫자가 역사를 말하게 할 수 있을까?

What can large-scale customs data reveal about modern East Asia?

숫자가 역사를 말하게 할 수 있을까?

What can large-scale customs data reveal about modern East Asia?

Can data change the story?

숫자가 역사를 말하게 할 수 있을까?

How do historians make Customs data speak?

안녕하세요,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및융합연구센터입니다.

3월 27일(금), 나고야대학 경제학연구과 木越義則(기고시 요시노리) 교수님을 모시고
중국해관(海關) 통계를 어떻게 읽고, 연결하고, 해석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합니다.

대규모 역사 데이터가 근현대 동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사의 서사를

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.

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 데이터의 구축·분석·시각화가

전통적 서사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.
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!

일시 2026년 3월 27일 (금) 15:00-17:00

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201호

언어 일본어 (순차통역)

문의 kim.calm@gist.ac.kr

프 로 그 램

사회: 김현정 (GIST CIER)

- 15:00-15:05 개회 인사 — 김동혁 (GIST CIER)
- 15:05-16:15 강연 「중국해관 통계와 나의 경제사 연구」 — 기고시 요시노리
- 16:15-16:55 주제 토론
- 16:55-17:00 폐회 인사